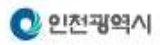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2월 18일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 원	담 당 자	• 생활환경과장 방준상 ☎ 440-5631 • 담 당 자 이현주 ☎ 440-5633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대중교통차량 공기질 특성평가로
쾌적한 교통환경과 시민 건강을 지킨다.
- 인천시,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 추진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대중교통차량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철도에 대한 공기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대중교통차량 객실 내의 실내오염물질 검사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, 2020년 4월 3일부터 미세먼지는 PM-10에서 초미세먼지인 PM-2.5(권고기준 5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)로 변경되었으며 측정주기도 2년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 바 있다.
- 따라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5개 노선을 대상으로 객실 내 뿐만 아니라 승강장 및 대합실로 조사지점을 확대하고 총부유세균,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12항목으로 강화하여 도시철도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영향인자 파악과 상관관계를 분석할 계획이다.

- 차량 객차 내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은 사람의 호흡 및 움직임, 차량의 내장재, 외부로부터의 유입 등에 의해 발생되는데 환기가 부족한 상태로 많은 승객이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므로 이번 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적절한 관리와 대처로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.” 라면서 “지속적인 지도·점검과 환경 개선 유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〈붙임〉 관련 사진

